

제30호(2017. 4. 5.)

## 최근 사과·배 가격 약세 원인 및 시사점

박미성 박한울 최기림 김성우



1. 문제 제기 .....	1
2. 2016년산 사과·배 재고 현황 .....	2
3. 가격 약세 원인 .....	4
4. 시사점 .....	7

감 수	황윤재 연구위원	061-820-2247	yjhwang@krei.re.kr
내용 문의	박미성 부연구위원	061-820-2362	mspark@krei.re.kr
자료 문의	성진석 선임전문원	061-820-2212	jssaint@krei.re.kr

- 「KREI 현안분석」은 농업·농촌의 주요 동향 및 정책 이슈를 분석하여 간략하게 정리한 것입니다.
- 이 자료는 우리 연구원 홈페이지([www.krei.re.kr](http://www.krei.re.kr))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요약



- 2016년산 사과·배 저장량은 생산량 감소로 전년보다 적으나, 최근 판매 부진으로 인한 가격 약세 지속
  - 사과·배는 생산량 및 저장량 감소에도 가격 약세 지속
  - 2년 연속 사과 생산량은 평년(45만 톤) 대비 27~28% 증가하여 평년 대비 가격 약세
- 2017년 2월 말 기준, 사과·배 재고량은 전년 대비 각각 6%, 27% 증가
  - 농가와 농협 APC 대상 지역별 재고 조사 결과, 사과는 주산지인 영남지역 재고량은 전년 대비 감소한 반면 비주산지 재고량은 증가한 것으로 조사됨. 특히, 농가 재고량은 전년보다 17% 증가하였음.
  - 배는 영남을 제외한 대부분의 지역에서 재고량이 전년 대비 증가하였으며, 저장 물량의 대부분은 품질이 낮은 저등위품임.
- 특히, 청탁금지법·수입과일 및 과일과채 물량 증가로 인한 사과·배 소비 부진
  -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소비자심리지수는 위축되어 있으며 금년 과일 설 선물 세트 판매액은 전년 동기 대비 31% 감소한 것으로 추정
  - 외국산 과일 수입량은 전년 및 평년 대비 4%, 10% 증가하였고 딸기, 토마토 등의 과일과채 출하량 증가로 가격이 하락하여 소비가 대체되는 경향
- 중장기적으로는 사과·배 소비 촉진을 위한 품질 향상 및 중소과 생산 확대 등의 노력과 여건 변화에 대응한 산지유통업체의 전략적인 마케팅 필요
  - 소비대체 경향이 과거보다 높아 분산출하 및 철저한 품질관리 필요
  - 대과 중심의 과일선물 수요 감소가 예상되므로 일상소비용인 중소과 생산 확대 노력 필요
  - 전문화·규모화된 조직을 통해 출하함으로써 수급 안정을 도모하고 개별 농가들의 품질경쟁력 제고
  - 시기적절한 판촉행사, 새로운 판로 개척 및 판로의 다양화, 공동브랜드 발굴 등을 통한 농가 및 유통업체의 대응 필요
- 2017년산 사과 생산량 전년 대비 증가, 배는 감소 전망
  - 2017년 사과 생산량은 포도 폐원농가의 작목 전환 및 신규 식재 증가로 전년보다 2%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가격 약세가 이어질 전망
  - 2017년 배 생산량은 성목면적 감소로 전년보다 4% 적을 것으로 예상되나, 소비 부진이 지속될 경우 가격 약세가 이어질 전망



## 1. 문제 제기

### □ 사과·배 저장량은 생산량 감소로 전년보다 적으나, 최근 판매 부진으로 인한 가격 약세 언론 보도 이어져

- 2016년산 사과·배 저장량은 생산량 감소로 전년보다 적을 것으로 추정 하였으나, 설 성수기 선물 수요 감소로 잔여 물량이 많음(2월 말 기준).
  - 2016년산 사과·배 저장량은 전년보다 각각 2%, 8% 감소할 것으로 추정(KREI 농업관측본부, 2016년 11월 30일 기준 추정치)
- 최근 사과·배 등의 과일 판매부진과 지역별 재고량 편차가 커 소비 촉진을 위한 언론 보도가 연이어 이어짐.
  - (2. 19. 연합뉴스) 과일이 안팔린다, 저장고마다 사과·배 재고 ‘산더미’
  - (2. 20. 연합뉴스) 과일이 안팔린다, 쌓이는 재고에 소비촉진 안간힘
  - (2. 24. 농민신문) 사과·배 주산지, 설 선물 판매 부진 ‘후폭풍’, 창고가 득 쌓인 사과보면 속터져
  - (2. 24. 농민신문) 판매채널 총동원 사과·배 소비촉진 돌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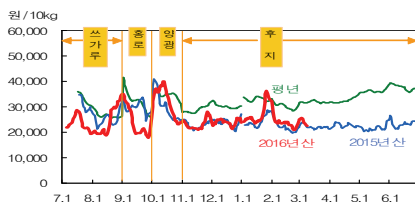
최근 사과·배 판매 부진으로 가격 약세 지속

”

### □ 2월 중순경 사과 가격 1만 9천 원, 배 가격 2만 3천 원까지 하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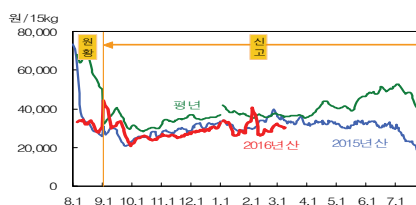
- 2월 사과 도매가격은 전년과 비슷하고 평년보다 낮은 2만 원 내외 이며, 배 2월 도매가격은 3만 1천 원으로 전년 및 평년보다 낮음.
  - 설 이후 품위에 따른 일시적인 가격 등락폭이 컸으며, 2월 중순경 사과 가격은 1만 9천 원, 배는 2만 3천 원까지 하락하였음.

그림 1. 사과 도매가격(상품) 추이



주: 평년은 2011~15년산 자료 중 최대, 최소 제외한 평균임.  
자료: 서울시농수산물공사.

그림 2. 배 도매가격(상품) 추이



주: 평년은 2011~15년산 자료 중 최대, 최소 제외한 평균임.  
자료: 서울시농수산물공사.

“

사과·배 생산량이  
전년보다 적으나,  
재고량은 많아

”

## 2. 2016년산 사과·배 재고 현황

### □ 2016년산 사과·배 생산량은 전년보다 각각 1%, 9% 감소

- 2016년산 사과 생산량은 착과수 감소와 폭염으로 전년 대비 1% 감소한 57만 6천 톤이며, 배 생산량은 단수 증가에도 성목면적이 크게 줄어 전년보다 9% 감소한 23만 8천 톤이었음.
  - 2015년산 사과 생산량도 58만 3천 톤으로, 2년 연속 사과 생산량 평년(45만 톤) 대비 27~28% 증가
  - 2016년산 배 생산량 평년 대비 14% 감소

### □ 2016년산 사과·배 가격은 평년보다 각각 23%, 14% 낮아

- 사과 가격은 전년보다 반입량이 감소하였음에도 가격 상승폭이 크지 않고 평년 대비 23% 하락하였으며, 배 가격은 물량 감소에도 가격 하락세가 지속됨.
  - 2월 사과(후지) 평균 도매가격은 반입량 감소(-26%)로 전년보다는 7% 높지만 평년보다는 23% 낮은 상품 10kg 상자에 2만 3천 원이었음.
  - 2월 배(신고) 평균 도매가격은 반입량이 감소(-59%)하였음에도 전년 및 평년보다 2%, 14% 낮은 상품 15kg 상자에 3만 1천 원이었음.

### □ 사과 재고 조사 결과, 주산지인 영남은 전년 대비 감소하였으나 비주산지는 증가

- 설 이후 사과 소비 부진으로 산지 물량이 적체되어 있으며, 지역별 재고량 차이가 크게 나타남.
  - 사과는 경북과 경남을 제외한 경기, 호남, 충청지역에서 재고량이 크게 증가하였음.
  - 특히, 면적비중이 적은 지역에서 재고량이 많은 것으로 조사되어 산지유통업체의 효과적인 마케팅 전략 수립 및 원활한 유통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 사과를 취급하는 농협 APC 재고량이 전년보다 10% 감소한 반면, 농가 재고량은 17% 증가하였음.

- 평년 기준 장기저장 출하시기(4~6월)의 도매가격은 단기저장 출하시기(12월~익년 3월)보다 14% 높았음. 농가는 장기저장 출하에 대한 가격 상승 기대 및 설 명절 판매 부진으로 2월 말 기준 농가의 재고량이 전년보다 증가하였음.

표 1. 사과 농가 및 농협 APC 재고량 조사 결과

단위: 톤, %(전년 대비 증감률)

구분	농가			농협 APC			전체		
	2016년	2017년	증감률	2016년	2017년	증감률	2016년	2017년	증감률
경기	38	115	202.6	-	-	-	38	115	202.6
충청	10,437	15,447	48.0	6,443	5,777	-10.3	16,880	21,224	25.7
호남	2,721	3,920	44.1	867	1,435	65.5	3,588	5,355	49.2
경북	10,075	9,055	-10.1	13,350	13,062	-2.2	23,425	22,117	-5.6
경남	11,517	12,157	5.6	2,670	734	-72.5	14,187	12,891	-9.1
전체	34,787	40,694	17.0	23,337	21,015	-9.9	58,124	61,709	6.2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2017년 2월 20일 기준 조사치.

□ 배는 영남을 제외한 대부분의 지역에서 재고량 증가, 특히 농가 재고 심각

- 설 이후 배 소비 부진으로 산지 재고 물량이 전년 대비 27% 증가하였음.
  - 지역별로 살펴보면, 영남을 제외한 대부분의 지역에서 재고량이 증가하였음.
- 배의 농가 및 농협 APC 재고량은 전년보다 각각 17%, 59% 증가하였음.
  - 청탁금지법과 경기 침체 등의 영향으로 수요가 감소하였고 저장 물량의 대부분은 품질이 낮은 저등위품이 많음.

“ 사과 주산지 재고량 전년 대비 감소한 반면, 비주산지 증가

”

표 2. 배 농가 및 농협 APC 재고량 조사 결과

단위: 톤, %(전년 대비 증감률)

구분	농가			농협 APC			전체		
	2016년	2017년	증감률	2016년	2017년	증감률	2016년	2017년	증감률
경기	4,802	5,160	7.5	1,653	2,481	50.1	6,455	7,641	18.4
충남	2,318	2,615	12.8	2,248	3,732	66.0	4,566	6,347	39.0
전남	4,508	5,841	29.6	137	368	168.6	4,645	6,209	33.7
전북	75	302	302.7	148	83	-43.9	223	385	72.6
경남	941	864	-8.2	7	6	-14.3	948	870	-8.2
전체	12,644	14,782	16.9	4,193	6,670	59.1	16,837	21,452	27.4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2017년 2월 20일 기준 조사치.

“ 사과·배 장기저장 출하기 가격 하락세 지속 ”

□ 사과·배 설 선물 수요 감소로 대과 잔여 물량 많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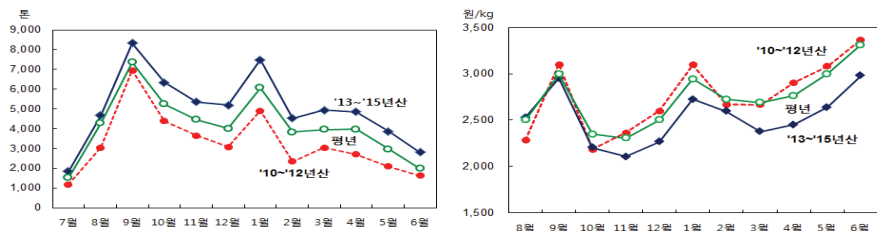
- 2월 말 기준, 사과 대과 저장량은 설 명절 선물용 재고 누적으로 인해 전년 대비 41%, 평년 대비 39% 증가하였음.
  - 2016년산 사과 대과 생산량은 약 10만 톤으로 전년 대비 25%, 평년 대비 8% 증가한 것으로 추정되며, 2월 말 기준 사과 대과 저장량은 1만 5천 톤으로 추정됨.
- 배는 지난해 폭염으로 대과보다는 중소과 물량이 전년보다 많았음에도 소비부진으로 인한 설 출하 물량의 미판매 재고품이 적체되어 있음.
  - 저장 배의 품질이 좋지 않아 저장성이 약화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가격 약세 지속

3. 가격 약세 원인

□ 최근 사과 가격은 생산량 및 저장량 증가로 과거 가격 패턴과 다른 특징을 보여

- 사과는 2015~2016년 생산량이 평년 대비 크게 증가하면서 장기저장 출하기 실질가격은 과거에 비해 하락하는 추세를 보임.
  - 최근(2013~2015년산) 장기저장(4~6월) 출하기 실질가격은 과거(2010~2012년산)보다 14% 낮아져 가격 하락폭이 수확기보다 큰 것으로 나타남.

그림 3. 사과 월별 반입량과 실질가격 변화 (반입량) (실질가격)



주: 가격은 평균단가(금액/물량)이며, 월별 생산자물가지수(2010=100)로 디플레이트함.  
 자료: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가락시장); 통계청.



### □ 배 가격 약세 지속되는 원인은 품질의 영향이 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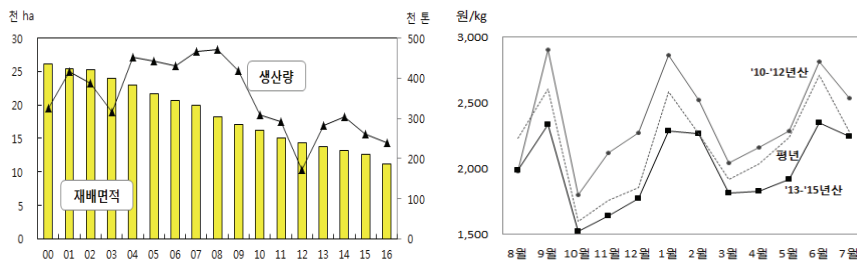
- 배는 재배면적 및 생산량 감소에도 가격 약세가 지속됨.
  - 배는 주로 제수용과 명절 선물용으로 소비되고 있어 평상시 수요가 낮은 편임.
  - 중만생종인 신고 품종의 재배면적 비중은 전체 배 재배면적의 83%를 차지하고 있어 추석이 이른 경우 성장조절제(지베렐린) 처리로 숙기를 앞당기고 있음.
  - 신고 품종 위주로 재배가 이루어지면서 성장조절제(지베렐린) 과다 처리에 따른 당도 저하, 푸석푸석한 식감 등의 저품질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 추석에 저품질 배가 출하되어 가격이 낮게 형성될 경우 소비자 구입의향이 감소하여 주출하시기까지 가격 약세 지속되므로 시기별로 출하 가능한 품종 다양화가 필요함.
  - 첫 출하되는 9월 가격이 1% 상승할 경우 주출하기 가격은 0.8% 상승하는 것으로 추정됨(농업전망 2017 참고).
  - 농업관측본부 소비자조사(2016. 12. 22.~23.) 결과, 구입한 배의 맛이 기대에 못 미칠 경우에 향후 배 구입을 줄이거나 전혀 구입하지 않는 소비자가 전체의 66%로 높게 나타나 그 해 처음 먹어본 배 맛이 향후 구입 의향을 크게 좌우하는 것으로 분석됨.

“

경기불황·청탁금지법 등의 영향으로 사과·배 소비 부진

”

그림 4. 배 재배면적과 생산량 및 실질가격 변화  
(재배면적과 생산량) (실질가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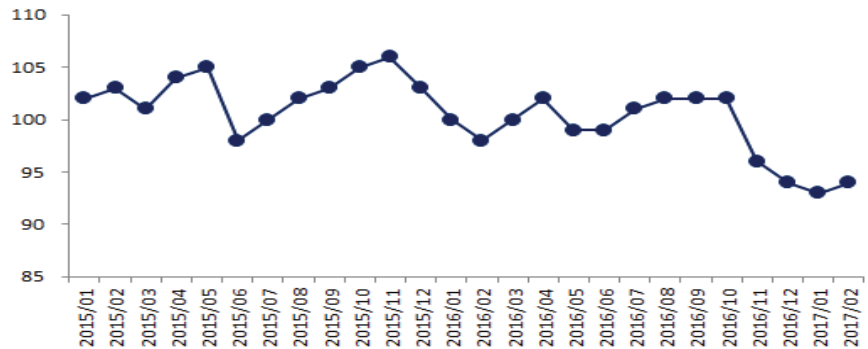
주: 가격은 평균단개(금액/물량)이며, 월별 생산자물가지수(2010=100)로 디플레이트함.  
자료: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가락시장); 통계청.

### □ 경기불황·청탁금지법 등의 영향으로 사과·배 소비 부진

- 소비자심리지수 10월 이후 4개월째 위축 심화
  - 2017년 1월 소비자심리지수는 93으로 전년 동월 대비 7% 하락
  - 2017년 2월 소비자심리지수는 94로 전월보다는 1%p 상승했으나, 전년 동월 대비 4% 하락

수입과일 및  
과일과채로 물량 증가  
등 소비대체 영향

그림 5. 소비자심리지수



자료: 통계청

- 청탁금지법 시행('16. 9. 28.) 이후 금년 과일 설 선물세트 판매액은 전년 동기 대비 31% 감소한 것으로 추정
  - 청탁금지법 적용 기준 금액대별 과일 선물세트 판매액은 5만 원 초과 상품이 46.4%, 5만원 이하 상품이 10.6% 감소

표 3. 과일 선물세트 판매액 추이(2015~2017)

단위: 백만 원, %(전년 대비 증감률)

구분	2017년 (12. 31.~1. 27.)	2016년 (1. 11.~2. 7.)	2015년 (1. 22.~2. 18.)
판매액	52,488 (-31.0)	76,114 (19.1)	63,915

주 1) 백화점 3사(신세계·롯데·현대), 대형마트 3사(이마트·롯데마트·홈플러스), 농협하나로 유통을 대상으로 자료를 수집하였음.

2) 집계기간은 설 명절 전 4주간('16. 12. 31.~'17. 1. 27.)이며, 조사기간은 2017. 2. 6~2. 17.임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조사치

### □ 수입과일 및 과일과채 물량 증가 등 소비대체 영향으로 사과·배 소비 부진

- 청탁금지법이 시행된 이후 2016년 10월~2017년 1월 외국산 과일 수입량은 19만 톤으로 전년 대비 4%, 평년 대비 10% 증가하였음.
  - 품목별로는 바나나(동 기간 전체 과일 수입량의 62.8%), 파인애플(13.7%), 오렌지(6.0%), 포도(5.6%) 등의 순임.
  - 과일 수입량이 매년 증가하면서 과일 공급량에서 수입과일의 비중이 2000년 12%에서 2015년 21%로 확대됨. 신선과일 수입량은 2000년 이후 연평균 5.5% 증가 추세에 있으며, 2016년 기준 75만 톤으로 전년 대비 4.8% 증가함.

- 사과 가격은 가을에 바나나와 포도 수입량이 10% 증가할 경우, 0.78%, 0.15% 하락하는 것으로 분석됨. 배 가격은 가을철에 포도 수입량이 10% 증가할 때 0.38%, 겨울철에 바나나와 오렌지 수입량이 10% 증가할 경우 0.46%, 0.68%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남(이용선 외 2014).<sup>1)</sup>

○ 딸기, 토마토 등의 과일과채 출하량 증가로 가격 약세 지속

- 최근 토마토 가격은 재배면적 증가와 겨울철 작황 호조로 출하량이 전년보다 증가하면서 최근 가격 하락세가 지속되었음.
  - \*토마토 도매가격(10kg 상품 기준): ('16. 2.) 18,071원 → ('17. 1.) 17,055 → ('17. 2.) 16,807
- 딸기도 주산지의 면적 증가와 작황 호조로 출하량이 증가하여 최근 가격 약세가 지속되었음.
  - \*딸기 도매가격(2kg 상품 기준): ('16. 2.) 21,258원 → ('17. 1.) 21,868 → ('17. 2.) 15,267

## 4. 시사점

### □ 단경기 사과·배 소비촉진을 위한 적극적인 판촉행사 필요

- 봄철 외국산 과일 수입량 증가로 국내산 과일과의 경합관계가 심화될 가능성이 커 사과·배 소비 촉진을 위한 적극적인 판촉행사가 필요함.
  - 과일 수입은 국내산 과일 출하 비중이 낮은 봄철(3~5월)에 집중(2016년 기준 42%)되므로 저장사과·배 출하 시 소비대체의 가능성이 큼.
  - 수입 비중이 큰 미국과의 FTA 체결에 따른 2016년 미국산 오렌지, 체리, 포도, 석류, 레몬, 자몽의 수입가격 하락폭은 31%로 추정되어 국내산과일의 가격경쟁력 약화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됨(KREI 농정포커스 제144호).

“

분산 출하 및  
일상소비용인 중소과  
생산 확대 필요

”

1) 이용선 외(2014). 『과일 수입 확대에 따른 소비행태 변화 분석』. 연구보고서 R716, p.40 참조.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여건 변화에 대응한  
산지유통업체의  
전략적 마케팅 필요

”

□ 대과 중심의 과일선물 수요 감소 예상되므로 일상소비용인 중소과 생산 확대 노력 필요

- 청탁금지법 시행으로 선물 상한액(5만 원)에 관계없이 선물수요가 감소하고 있으나, 평상시 가정 내 수요는 꾸준한 편임. 따라서 소비자의 소비 트렌드 변화에 따라 기존의 생산·유통 시스템의 개선이 필요함.
  - 소비자의 연중 과일 소비를 위해서 선물수요에 집중하여 대과 위주로 생산하던 기존의 재배방식을 소비자들이 가정용으로 선호하는 중소과 재배방식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음.
  - 배의 경우 대과인 신고 품종보다는 중소과 품종인 원황, 추황, 한아름 등의 생산확대가 필요함. 이는 시기별로 출하 가능한 품종 다양화에도 도움이 됨.
  - 또한, 배 중소과 생산 확대는 중소과 크기를 선호하는 해외로의 수출이 용이하여 수출물량 증대에도 기여할 수 있음.
- 대과 및 중소과 생산을 철저히 구분해 농가들의 연중 수익을 안정화시킬 필요가 있음.
  - 일반적으로 선물용 및 제수용으로 사용하는 대과 생산과 평상시 가정용 소비로 선호하는 중소과 생산을 철저히 구분할 필요가 있음.
  - 대과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적과 등에 노동력 및 비용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노동비와 생산비를 절감할 수 있는 중소과의 생산 비중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 분산 출하 및 철저한 품질 관리 필요

- 사과 생산량 증가로 장기저장 시기에 과거(평년)보다 높은 가격을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분산 출하를 할 필요가 있음.
  - 사과 재배면적은 2003년 이후 꾸준히 증가하여 2016년 3만 3천 ha 수준까지 성장하였음. 이에 따라 기상이 양호하면 과잉 생산되는 문제점이 있으며, 저장량 또한 증가하기 때문에 장기저장 시기의 높은 가격을 기대하기 어려움.
  - 사과 월별 도매가격을 살펴보면, 장기저장사과 출하시기 가격이 과거에 비해 하락하는 추세이며 그 크기가 매년 커지고 있음. 평년 기준 사과 장기 저장(4~6월) 가격은 상승 추세이나, 2015년산과 2016년산은 단기저장(12~3월) 가격과 비교해 큰 변화 없었음.

- 추석에 저품질 배가 출하되어 가격이 낮게 형성될 경우 소비자 구입 의향이 감소하여 주출하시기까지 가격 약세가 지속됨. 따라서 성장 조절제 처리 지양과 철저한 품질 관리 및 시기별로 출하 가능한 품종의 다양화가 필요함.

□ 산지 작목반 중심의 공동 출하 및 산지유통업체의 전략적 마케팅 필요

- 사과·배 재고량은 산지유통업체의 마케팅 전략에 따라 지역별 편차가 있으므로, 농가 및 유통업체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함.
  - 시기적절한 판촉행사, 새로운 판로 개척 및 판로의 다양화, 공동브랜드 발굴 등을 통해 장기 경기침체에 따라 위축된 소비를 회복 및 촉진 시킬 필요가 있음.
- 산지 작목반과 같은 전문화·규모화된 조직을 통해 출하함으로써, 수급 안정을 도모하고 개별 농가들의 품질 경쟁력을 제고시킬 필요가 있음.
  - 조직화를 통한 고품질 안정 생산, 경영 마케팅 역량 강화, 다양한 판매처 확보로 생산 기반 구축

□ 2017년산 사과 생산량 전년 대비 증가로 가격 약세 우려

- 2017년 사과 생산량은 재배면적 확대로 전년보다 2%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 사과 재배면적은 포도 폐원농가의 작목 전환 및 신규 식재 증가로 전년 대비 2%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이로 인해 2017년산 사과 가격 약세 우려
    - \* 포도 폐원농가가 사과로 작목 전환할 경우, 성목이 되는 5년 후에는 사과 생산량이 평년 대비 17.8% 증가할 것으로 예상
- 2017년 배 생산량은 재배면적 감소로 전년 대비 4% 적을 것으로 전망됨.
  - 배 생산량은 성목면적 감소로 꾸준히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나, 소비가 회복되지 않을 경우 배 가격 감소세는 이어질 것으로 전망됨.

“

2017년산 사과  
생산량은 전년 대비  
증가, 배는 감소 전망

”

---

## KREI 현안분석 제30호

최근 사과·배 가격 약세 원인 및 시사점

---

등 록 제6-0007호(1979. 5. 25.)  
발 행 2017. 4. 5.  
발 행 인 김창길  
편집위원 김수석, 마상진, 황윤재, 이대섭, 지인배, 심재현, 구자춘  
발 행 처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우) 58217 전라남도 나주시 빛가람로 601  
대표전화 1833-5500 <http://www.krei.re.kr>  
인 쇄 (주)한디자인코퍼레이션  
02-2269-9917 [admin@han-d.co.kr](mailto:admin@han-d.co.kr)

- 
- 이 책에 실린 내용은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공식 견해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 이 책에 실린 내용은 출처를 명시하면 자유롭게 인용할 수 있습니다. 무단 전재하거나 복사하면 법에 저촉됩니다.
-